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5년9월23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3)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7)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7)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6)
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2)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8)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6)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8)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1)
1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5)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6)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7)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4)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5)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6)
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6)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0)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1)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0)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8)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6)
24.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7)
2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1)
2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0)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5)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9)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4)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3)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5)
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5)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6)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7)
3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7)
4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8)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0)
4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8)
4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0)
5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1)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1)
5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53.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희정

-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00)
54.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중구 외 51,4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1)
55.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강성태 외 50,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3)
56.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5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60.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1.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6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8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8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3) 8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7) 8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7) 8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6) 8
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2) 8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8) 8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6) 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8) 8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1) 8
1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5) 9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6) 9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7) 9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4) 9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5) 9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6)	9
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6)	9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0)	9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1)	9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0)	9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8)	9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6)	9
24.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7)	9
2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1)	9
2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9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0)	9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5)	9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9)	9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4)	9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3)	9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5)	9
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9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5)	9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6)	9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9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7)	9
3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9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9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9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9
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9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7)	10
4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8)	10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0)	10
4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10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10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10
4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0)	10
5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1)	10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1)	10
5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10
53.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00)	10
54.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중구 외 51,4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1)	10
55.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강성태 외 50,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3)	10
56.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10
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10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10
5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10
60.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
61.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4
6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4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문정복·정을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문수·박성준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3일까지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 법률안 의결, 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최고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첫 참석이시니까 인사말씀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최고진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더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 다음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이 쌓여 온 학교 현장이 학생과 선생님 모두 존중받고 배려하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고 장애가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도 세심히 돌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키워 나가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교육 현안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오늘 중책을 맡아서 국회 상임위에 인사를 드리는 아주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또 걱정하고 계시다시피 한국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고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의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 그리고 고등교육은 경제강국, 문화강국을 이끌어 갈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달리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 방법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만 큰 교육 방향의 전환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주 상의드리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은……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여야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일단 법안 상정 끝내고 하시는 건 어떨까

요?

○**조정훈 위원** 임명에 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이콧한 게 있어서……

○**위원장 김영호** 그러실까요?

그러면 조정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야당 간사 조정훈입니다.

오늘 최교진 장관님 그리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님 이렇게 상임위에서 뵈게 되는데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 마음이 솔직히 편치는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아시는 대로 최교진 장관 임명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소집에서 보이콧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어떤 노력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 교육상임위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력히 반대한 장관후보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전교조 출신 정책보좌관을 임명한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후보께서 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계획서가 의결됩니다.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과연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긴 호흡의 교육정책을 절대로 정쟁에 휘말리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까?

고민정 간사님.

○**고민정 위원** 그동안 교육부의 공백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교육부 수장이 없었던 게 몇 달이나 됐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매불망 교육부장관님이 오시기를 참 많이 기다렸었지요. 또 국가교육위원회도 사실은 임기는 9월 26일인가요, 그쯤까지 임기가 있고 또 교체되는 게 일정 수순을 밟는 것이긴 한데 이것 역시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전임이었던 이배용 위원장께서 금거북이로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요 이배용 위원장의 그런 행태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문위원들이 회의 운영하는 과정이나 혹은 정책과 제도를 설계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어서 어떤 분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임명되신 차정인 위원장님께서서는 워낙 고등교육의 전문가이기도하시고 또 아주 큰 의지와 추진력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그 역할을 해 주시고 무너져 내린

국가교육위원회를 다시금 살리는 것도 역할이고 앞으로의 십년지대계에, 백년지대계이긴 하지만 국교위가 10년 만큼의 계획은 짜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책임감 있게 꼭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고진 장관님도 사실은 지난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혹은 세종에서의 성공 사례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능력 좋으신 분께서 교육부장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앞서서 전교조 출신의 사람이 임명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주홍글씨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건 간에 능력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어느 출신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얼굴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공정하게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사람을 등용하고 인재의 등용문을 장관님께서 열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렵겠지만 한 분은 초·중등의 전문가이시고 한 분은 고등의 전문가이셔서 딱 맞는 환상의 호흡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도 많고 어깨도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고진 장관님이나 차정인 위원장님, 두 여야 간사님들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여야 간사님들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두 분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일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많은 노고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장님, 교육부장관님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여야 간사님들의 말씀 잘 가슴속에 새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3)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7)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7)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6)
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2)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8)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6)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8)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1)

1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5)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6)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7)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4)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5)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6)
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6)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0)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1)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0)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8)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6)
24.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7)
2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1)
2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0)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5)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9)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4)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3)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5)
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5)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6)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7)
3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7)
 4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8)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0)
 4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8)
 4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0)
 5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1)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1)
 5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53.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00)
 54.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중구 외 51,4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1)
 55.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강상태 외 50,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3)
 56.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5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 (10시16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52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등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혹시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 4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김대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고민정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34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 의결했고 나머지 31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도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대상이 되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벌칙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고 벌칙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면책 적용 기준을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내용 중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조문의 후단에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혹시 토론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최교진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법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학교안전법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직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인력도 교직원과 동일하게 면책 대상에 포함해서 안전사고 불안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의 정대화 상임위원님, 김태준 상임위원님이 아마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든 역할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신 거지요? 하여튼 두 분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전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퇴실하셔도 되나요?

○**서지영 위원** 아니요, 계실 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서지영 위원님이 잠시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꼭 하시고 싶다고 그러셔서,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퇴실하셔도 되는데 장관님이 계실 때 제가 장관님께 직접 여쭙보고 싶지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교육부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최교진 신임 교육부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부의 앞으로의 교육정책, 입시정책에 대한 굉장히 중차대한 시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교육부에서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장관의 말씀대로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에서 장관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되는 일정

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예상대로라면 초등학교 6학년생인 2032년도 입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 전반에 그리고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차대한 만큼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과 소명을 저희는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당시에 대정부질문에서 최고진 장관은 교육감들과 협의 과정에서 이런 데 공감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시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입시정책의 결정권자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교육부장관께서 이런 입시정책에 대한 굉장히 중차대한 시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교육부의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교육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육부 측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부는 ‘장관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정책 추진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얘기한 겁니까? 장관 개인의 철학이나 소신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려면 뭐 하려고 장관을 하십니까? 교육부가 밝힌 입장과 장관의 입시 정책에 대한 생각이 상반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조만간 밝혀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4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수신 관련된 입시 과정을 순간순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다 인지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학교에 여러 가지 잘못된 시그널로 혼란이 있다 그러면 교육부가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60.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6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60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 기관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6개를 포함해서 모두 68개입니다. 10월 14일—화요일이지요—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16일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20일은 서울·인천·경기 3개 교육청 감사를, 22일 수요일, 23일 목요일 양 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과 병원 등을 감사합니다. 10월 28일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인천대 포함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과 병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30일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외의 필요한 기관을 출석시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감사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세부적인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28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 의사일정 61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나 감사반은 의결로써 감사와 관련된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는 늦어도 보고 또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기관 등에 송달해야 합니다.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모두 1만 3935건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공휴일, 추석 연휴를 감안해서 자료제출 기한을 오늘 의결한 자료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로 그 외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각각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메일과 USB 장치를 이용해서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6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증인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관증인은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공식인 직위를 포함해서 모두 68개 기관, 233명입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은 기관장 포함 국장급 이상을 그 밖의 기관은 기관장과 적정 수의 임원 또는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일반증인 8명, 참고인 2명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관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기업인들을 가급적이면 국정감사에 부르고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상 기업인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스코 장인화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고민정 간사님 그리고 조정훈 간사님께 무척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부르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대학 총장을 했고 그리고 교육계에 있었고 정부에서도 있어 봤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포스텍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600억 이상의 굉장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연구시설에 대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주 제 의원실로 계속해서 투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텍은 왜 포스텍 회장을 교육위원회에서 부르냐 이렇게 하지만 포스텍의 이사장이 지금 포스코 회장입니다. 그리고 AI 문제라든지 인재 양성 그리고 글로벌대학 포스텍이 선정됐고 이러한 현안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오늘 1차에서 의결은 빠졌지만 2차 아니면 3차 그리고 종합감사에서도 반드시 장인화 회장이 출석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비록 증인 출석에 빠져 있지만 2차 때나 종합감사 때는 양쪽의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비서실에 통보를 해 놔습니다.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는 해외출장 전면 금지한다, 내가 반드시 부르겠다 이렇게 해 놔어요. 포스텍 장인화 회장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분이예요. 여기에 민주당에서 보호할 그렇게 큰 그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스코 회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는데 왜 우리가 안 부르겠습니까. 다만 아마 국회 여야 지도부가 요새 관세 협정과 여러 가지 통상 문제로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김대식 위원 그거는 나는 포스코 회장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김대식 위원님이 지금 요청한 포스코 회장 건 문제는 교육위원회 현안에서 꼭 불러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여당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국회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숙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핵심 증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항상 그분은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용 이사장의 행태는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부

터 24년까지 무려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22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23년에는 스위스 취리히 그리고 작년에는 헝가리에 체류하면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갔습니다. 출장 목적 또한 매년 똑같은 글로벌 캠퍼스 설립 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올해 국정감사에는 아직 국정감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김지용 이사장 사전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완전히 김지용 이사장과 국민대가 국회를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가, 오늘 증인 의결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미리 사전 불출석 통보를 했다는 것은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우리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국회가 요구한 출석을 철저히 회피하면서도 편도 1300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초호화 출장을 이어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데 만약 김지용 이사장이 올해 국정감사마저 불출석하면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네 번째 국정감사 불출석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를 기만하고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행태 역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김지용 이사장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비리 사건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자격자와의 계약,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임에도 절차 없이 계약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적발해서 감사까지 해서 기관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심의와 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다’ 이런 정말 황당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었는데 몇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의결에 준한다’, 어떤 국민들이 이런 무혐의 처분에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처분을 내린 검찰 측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담당 검사들 불러내서 꼭 따져 물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이사장은 지금까지 3년 연속 세 번이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했고 작년 국정감사 불출석 건은 고발이 되었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토록 문제점이 명백함에도 정말 이런 불기소, 불송치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조력자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세상 국회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교육위원장으로 앞으로 상습적인 국정감사 회피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채택한 증인이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회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국정감사 한 달 지나면 그냥 잊혀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여야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성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심과 판단이 있었는데요. 고민정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이 정말 요즘같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합의 처리해 주신 것은 정말 교육위원회가 타 상임위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의 사례로 저는 판단하고 여야 모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조정훈 간사님 또 고민정 간사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증인·참고인 철회나 출석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일반증인(8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10. 23.(목) 경남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10. 14.(화) 국회(교육부) 등 10. 30.(목) 국회(교육부) 등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10. 14.(화) 국회(교육부) 등 10. 28.(화) 국회(서울대) 등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10. 14.(화) 국회(교육부) 등 10. 30.(목) 국회(교육부) 등
주명건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명예이사장	10. 14.(화) 국회(교육부) 등 10. 30.(목) 국회(교육부) 등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10. 14.(화) 국회(교육부) 등 10. 30.(목) 국회(교육부) 등
신병철	한민고등학교 교장	10. 20.(월) 국회(경기도교육청) 등 10. 30.(목) 국회(교육부) 등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10. 14.(화) 국회(교육부) 등

참고인(2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정 환	고려대학교 입학처장	10. 14.(화) 국회(교육부) 등 10. 28.(화) 국회(서울대) 등
한성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10. 20.(월) 국회(인천시교육청) 등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최교진
차관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 구연희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최수진

임시회의록